

신구약중간사 3강 - 마카비 혁명과 유대 분파

샬롬! 안녕하세요. 신구약 중간사 강의에 나오신 수강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유대는 페르시아를 거쳐, 헬라제국을 거치면서 지배를 받게 되지만 종교와 문화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죽고 헬라제국이 무너지자 여러 나라로 나뉘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류커스왕조의 지배를 번갈아 가면서 받게 됩니다. 특별히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큰스 4세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은 이에 어떻게 반응하며 행동했을까요?

1. 마카비 혁명의 시작

예루살렘 성전을 돼지의 피로 더럽힌 안티오큰스 4세는 모데인(Modein)이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 그곳에서도 제우스 신을 섬기 위해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데인 제사장 마타디아는 제우스를 위한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마타디아를 대신하여 다른 유대 사람이 제단 앞에 나와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마타디아가 제단으로 나온 유대인과 안티오큰스 4세가 보낸 대표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아들과 추종자들을 데리고 모든 재산을 버려둔채 사막의 한 동굴로 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 열심이 있는 자들은 나를 따르라” 이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타디아에게 몰려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티오큰스 4세는 가만이 있지 않았겠죠? 군인들로 하여금 수색을 펼칩니다. 결국 마타디아가 숨어있는 동굴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동굴을 막아 어린 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해 무려 1천명을 죽였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느니 차라리 안티오큰스 4세의 손에 살해되는 쪽을 택한 것이죠. 이는 하시딤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전해져 적지 않은 충격을 남기게 됩니다. 이에 하시딤들은 마타디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마타디아는 낮에는 숨고 밤에는 안티오큰스 4세의 세력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방제단을 훨어버리고, 어린 사내아이들에게 강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관리들을 내쫓아내고, 모세의 율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마타디아의 무력항쟁은 1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마타디아가 아들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율법에 대해 열심을 보일 것이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마카비 가문을 살펴보면, 맨 위에 마타디아가 있고, 첫째 아들은 요한, 둘째 아들은 시몬, 셋째 아들은 유다 마카비, 넷째아들은 엘르아살, 막내는 요나단이었습니다. 마타디아는 ‘망치질하는 자’라는 뜻의 ‘마카비(Maccabeus)’라는 별명을 가진 그의 셋째 아들 유다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2. 독립을 위한 투쟁 - 유다 마카비, 요나단, 시몬

당시 안티오큰스 4세는 코끼리를 앞세워 전투에 임했습니다. 코끼리는 탱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전면전으로 승부를 봤다는 큰 피해를 입었겠죠. 그래서 유다 마카비는 주로 게릴라 전법을 사용했습니다. 치고 빠지는 방법을 택한 것이죠. 이를 통하여 유다 마카비는 안티오큰스 4세를 계속 이겼습니다. 안티오큰스 4세는 파르티아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신경을 썼기에 리시아스 장군과 대군들을 유대로 내려보냈습니다. 리시아스는 유대 산지를 공격하기 위해 두 지휘관을 세워 4만6천명의 보병과 7천기의 기병을 보냈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죠. 이에 반해 유다 마카비는 겨우 3천명의 군대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마카비는 이들을 이끌고 급습하여 오히려 리시아스의 대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따라나왔던 노예 상인들을 포로로 잡아 다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때 마침 파르티아와 전쟁 중이던 안티오큰스 4세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 옵니다. 그러자 리시아스 장군은 할 수 없이 전투 대신 마타디아의 아들 유다 마카비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청결하게 되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것이며, 유대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3년동안 걸쳐 안티오큰스 4세의 박해가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자,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하여 축제를 벌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닦아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여 한자로는 '닦을 수, 큰집 전'자를 사용하여 수전절, 영어로는 봉헌의 축제라는 뜻으로 봉헌절이라 부릅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하누카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누카는 빛의 축제란 뜻인데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램프를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보통 7개의 가지가 있는데요, 가운데에 하나의 가지가 있고 양 옆으로 세 개씩 가지가 있어 모두 일곱입니다. 축제 때는 '하누카 램프'를 사용하는데 이 램프는 7개가 아닌 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누카 축제 일 첫날에는 중앙에 있는 가지와 다른 한 가지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불 한개를 추가합니다. 마지막 여덟째 날이 되면 아홉 개의 가지가 모두 환하게 빛도록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자 목표를 이룬 하시딤은 유다 마카비에게 후원을 끊고 군대를 철수 시킵니다. 그러자 유다 마카비의 군대는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마카비는 유대 온 국민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결국 유다 마카비도 죽게 됩니다. 그 후 대제사장의 공석이 7년동안 이어집니다. 유다 마카비를 이어 막내동생인 요나단이 둘째 형 시몬의 도움을 받아 민족주의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유다 마카비는 용맹, 무력, 전략, 결단력으로 정복을 이루었다면, 막내동생인 요나단은 외교술로 정권을 획득했다고 하여 '교활한 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유대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던 셀류쿠스 왕조는 유대에 대한 헬라화를 포기하고, 요나단을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당시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는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유대에 대해 신경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유대는 평온한 시기를 보낼 수 있었고, 요나단은 로마와 스파르타를 상대로 조약까지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셀류쿠스 왕조의 한 장군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죽음으로 둘째 아들 시몬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직과 유대의 지배권을 함께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셀류쿠스 왕조의 데메트리우스 2세가 유대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인정합니다. 이때로부터 80년간 '독립 국가'를 유지하게 됩니다.

시몬은 헬라파와 하시딤 그리고 마카비파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시몬은 사위 프톨레미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시몬의 부인도 사위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가 얼마 후 잔인하게 살인당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도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는 다행히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힐카누스는 프톨레미가 살해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버지가 담당하던 대제사장직을 이어나갑니다.

3. 바리새파

안티오큰스 4세에 대항하기 위한 마카비 혁명 초기에는 마카비 일가와 하시딤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서로 뜻을 달리하면서 유대는 세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분파는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분파이기도 합니다. 바리새라는 명칭은 구별되다 또는 무엇으로부터 분리하다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들은 하시딤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로 B.C164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는 유다 마카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마카비 혁명이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벗어나 정치적 패권 다툼에 관심을 기울이자 마카비 가문에 흥미를 잃고 맙니다. 종교적인 자유를 얻은 후 유다 마카비에 대한 도움을 끊었죠.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중요시 여겼지만, 교리 중에 메시아 왕국, 죽음 이후의 생명, 마귀와 천사의 이중성 등을 보면 페르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의식 준수에 있어서 다른 분파보다 뛰어났고 율법을 정확히 해석해 내려했습니다. 모세오경만 받아들인 새두개파 사람들과는 달리 구약성경 대부분의 책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성경과 말로 전해져오는 계율들을 다 지키려 했으며,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천사와 악마의 존재, 메시야를 소망, 그리고 부림절과 하누카 절기를

받아 들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연구했던 서기관과 학자들을 포함하여 대중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반면 정치 권력은 갖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대로 율법을 엄하게 강조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은 사두개파를 형성하고 있는 하스몬가의 정치적 지배를 비판하고 견제했습니다.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는 원래 규모가 작았지만 점차 발전을 했던 데요. 크게 3가지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로 인한 발전입니다. 율법주의는 바벨론 포로시대에 시작된 토라 종교를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귀환 이후 유대에서는 회당에서의 율법공부가 강조되었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율법해석 연구가 생활에 적용되면서 후대에 이르러 바리새인들로부터 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국가주의로 인한 발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 때 발전된 것인데요, 귀환 이후에도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동질성과 국가를 구현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군사 활동은 아시아를 헬라화 하려는 시리아군과 투쟁하면서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임을 주장하며 국가주의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셋째는 하시딤의 출현으로 인한 발전입니다. 하시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교가 세속화 되는 것을 막고 유대인들의 이방적인 생활과 정신에 놀라면서 생겨난 집단입니다. 요단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데가볼리에는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에 현혹되어 살았습니다. 그리스의 생활방식과 예절, 어투를 사용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헬라 사회에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길이었습니다. 유대교는 도전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분노로 발생한 집단이 하시딤입니다. 하시딤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유대인들이 헬라화되는 것을 막는 특수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면서까지 율법과 야훼(하나님) 경외, 조상의 종교를 지키려 했기 때문에 마키비 반란 때 적극도와 활동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한 복장으로 다른 분파와 구별하였습니다. 일단 머리에 경문을 차고 다녔는데요. 경문은 성경구절을 양피지에 적어 넣은 작은 가죽상자 2개를 말합니다. 팔뚝과 이마에 찰 수 있도록 긴 가죽끈을 붙여 놓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경문을 넓게하고 옷술을 크게 하여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작게 하였습니다.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린 사두개파와 구약 성경 전체를 받아들인 바리새파 간의 분쟁은 나라를 수년간 끊어 놓았고 결국 내란까지 발생하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더하려고 했고, 사두개인들은 성경에서 무엇인가 빼려 했습니다. 때문에 이 두 분파는 신구약 중간기를 포함하여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4.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부유한 귀족층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진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직을 갖고 있었지만, 모두다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돈 많은 상인, 정부관리, 기타 특수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두개파는 종교적인 분파라기보다 사회적 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이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파의 어원에 관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솔로몬 왕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 명칭이 유래되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의로운이라는 뜻과 관련된 히브리어가 파생되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헬레니즘을 좋아했으며 하스몬 왕가부터 로마 제국까지 정치노선을 함께 했기 때문에 권력이 그들로부터 계속 이어졌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합병시켰을 때 공식 대표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이를 사두개파 사람들이 담당했기에 계속 지배계급을 이어갔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성전에 있었으며, 회당에서 그들의 지지자들을 찾았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이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사두개파에게 성경은 오직 모세오경뿐이었죠. 또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와 영의 존재가 없다 주장하며 섭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유타리로 여겨지는 장로들의 전통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있었으나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해 철저히 베타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파는 바리새파 다음으로 중요한 종교적 종파였습니다. 바리새파는 개종자들을 환영하고 찾았다녔지만, 사두개파는 귀족이자 대제사장들로 이루어진 폐쇄적인 집단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귀족외에는 아무도 사두개파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사두개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5. 에세네파와 사해 두루마리 사본

성경에는 에세네파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신약의 그 어떤 인물도 에세네파가 활동하던 쿰란을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에세네파와 쿰란 공동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세네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에세네파는 마카비 혁명에 영향을 받았고,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와 바리새파간의 논쟁으로 생겨난 분파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교의 중심이 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대신에 율법 준수가 진정한 예배이며 유대교라 믿었죠.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세속 정치와 대중들로부터 분리를 선언했습니다. 사해 주변 천연동굴이 많이 있어 몸을 숨기기에 좋았습니다. 그곳에 쿰란이라는 곳을 만들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고, 종교적인 공동생활권을 만들며 장로의 지도하에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재산을 서로 공유했고 예배와 독서, 공동식사를 중요한 행사로 여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장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입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던 쿰란에서는 사해 두루마리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로 가죽에 쓴 문서들인데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긴 것은 8.6m나 됩니다. 사해 두루마리사본은 구약의 내용들이 적혀 있는 현존하는 최고의 사본인데요. 이 사본에는 목시문학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목시 문학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해 표현합니다. 그리고 종말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용기를 불돋아 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가올 메시아 시대에는 축복을 받으며, 심판 날에는 의인으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곧 이루어질 것이기에 힘을내어 신앙을 지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수도원 공동체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주후 68년에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됩니다.

6. 열심당

A.D 6년에 유대인 정치 지도자 아켈라우스(Achelaus)가 있었는데 자리에서 면직되고 로마인들이 유대 땅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때 유대인들에게 호적등록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이는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습니다. 이것을 반대한 유대인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특히 바리새파를 떠난 바리새인들 중에서 강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열심당, 또는 젤롯당이라는 단체가 생겨납니다. 이들은 마카비의 후계자로 이후 로마에 대해 폭력적으로 저항하였습니다. 일제시대와 비교해 보자면 독립군이나 광복군으로 볼 수 있죠. 이들은 종교적 확신을 가진 유대 애국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열심당은 율법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주'라고 부르지 않았으며, 어느 왕에게도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자'이며 '주'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고통을 하찮게 여겼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이 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들은 목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즉 토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토라를 위해 싸울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던질 각오를 했던 자들입니다.

열심당은 신학적으로는 거의 모든 면에서 바리새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딱 한가지 면에서 바리새파와 열심당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메시야를 세상에 빨리 보내주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하여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야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받는 고통은 자신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열심당은 달랐습니다. 칼을 들고 대항하여 싸우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시간 이전에 메시야를 보내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로마에 저항하여 싸우면 유대인들이 패배할 것이 뻔합니다. 많은 이들이 죽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던 시간보다 일찍 메시야를 세상에 보내주시겠죠. 이것이 열심당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상하지만 그들은 당시 이것을 진지하게 믿었죠. 이로 인해 열심당은 식카리라는 별명도 있었는데요. 식카리라는 것은 아람어로 '단도'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단도를 소지하고 다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단도로 매국노를 암살하기 위해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열심당에게는 세 명의 를 모델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마타디아, 그리고 비느하스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 이긴 인물입니다. 마타디아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안티오큰스 4세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킨지도 자죠. 엘리야와 마타디아의 공통점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열심당원들은 자신들이 로마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이지만 엘리야와 마타디아를 본받아 용감히 싸우면 충분히 로마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를 모델인 비느하스는 약간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론의 손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은 여인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합니다. 성적인 범죄에 빠지고, 함께 제사에 참여함으로 우상숭배까지 하죠. 하나님은 크게 노하시고 영병을 내려 2만 4천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회막 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므리라는 유대인 지도자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음란한 짓을 하기 위해 자기 막사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 그저 보고만 있을 때, 비느하스는 막사로 들어가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비느하스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로 비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죠. 비느하스는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그를 죽임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열심당은 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신앙을 배반하고 로마에 빌붙어 사는 자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시므리를 처단했던 것처럼 배신자들을 처단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도를 지니고 다니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된 반역자들을 암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당은 주후 73년에 마사다라는 곳에서 로마군에 의해 멸절되고 맙니다.

7. 정리하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안이오코스 4세에 대한 반발로 시작한 마카비 혁명부터 핫시딤으로 시작하여 여러 가지 신앙의 특색을 지닌 분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려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말씀 앞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로 시작되는 하스몬 왕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많은 내용들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필기가 어렵다하시는 수강생분들이 많으신데요. 강의자료실에 보시면 강의안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